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

: 기초의회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Electoral District and Women's Representation

: Explaining the Differences in Women's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박지영** · 조정래***

Park, Ji-Young · Cho, Chung-Lae

■ 목 차 ■

- I. 서론
- II.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 결과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크기가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0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가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종속변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독립변수인 선거구 크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의 평균이다. 통제변수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도시화율, 유권자 교육수준, 인구수,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 유형, 여성 투표자 비율, 투표자 평균 연령)과 후보자 특성(여성후보 평균 학력, 여성후보 주요 정당 공천 비율, 여성후보 정치 경력 비율)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선거구 크기가 여성의원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여성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대 선거구제가 지방정치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중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6. 8. 17, 심사기간(1, 2차): 2016. 8. 17~2016. 9. 26, 게재확정일: 2016. 9. 26

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 주제어: 여성대표성, 지방선거, 선거구제, 선거구 크기, 기초의회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trict magnitude and the women's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The local governments, with female candidates for local councils in 2010 local election, were investigated. In the research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ratio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a local council.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district magnitude measured by the average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electoral districts in each local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female candidates for local councils were employed as control variables. The finding is that the district magnitude of local governments has an effect o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local councils. An increase in a district magnitude leads to an increase in the ratio of female representatives of a local council. From this empirical finding it is concluded that the electoral district system can play an important role to enhance the women's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 Keywords: women's representation, local election, electoral district, district magnitude, local council

I. 서론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1995년 광역의회 4.5%, 기초의회 1.5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 14.32%, 기초의회 25.26%로 역대 최다(最多) 여성의원이 당선되었다¹⁾.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의회의원 중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만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다²⁾. 비례대표의 경우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지

1) 이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역구 의원은 그렇지 않다.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이 현저히 낮다. <표 1>은 2010년과 2014년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선거에서 전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3개(약 45.2%)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의원이 한명도 당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이런 기초자치단체 수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71개(약 31.4%)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명의 여성도 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즉, 2010년에 약 1/2, 2014년에 약 1/3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의원이 존재하는 경우도 그 비율이 높지 않다. 2010년과 2014년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약 42%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였다. 2010년과 2014년 기초자치단체 지역구 의원 수의 평균이 11.02명, 11.15명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원이 존재하는 기초의회의 경우도 대부분 1-2명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여성의원 비율 분포가 다양하다. 여성의원 비율이 10%초과~20%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2010년과 2014년 모두에서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약 1/3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기초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여성의원인 기초자치단체도 존재한다. 2010년에는 1개 기초자치단체(경기도 하남시)가 여성의원 비율이 40%초과~50%이하인 구간에 포함되며, 2014년에는 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구간에 포함된다.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여성의원이 50%를 초과한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2014년 경기도 과천시³⁾의 경우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 한명의 여성의원도 선출되지 않은 지역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여성의원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기초의회의원 중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 중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비례대표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특성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다. 반면,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이 득표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특성을 주요 통제변수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라고 함은 기초의회의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3) 경기도 과천시는 2014년에 선출된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의원이 50%를 넘는 유일한 사례로 6명의 당선인 중 여성당선인은 5명이다.

〈표 1〉 여성의원 비율별 기초자치단체 수(지역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수, %)

	0%	0%초과~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30%초과~ 40%이하	40%초과~ 50%이하	50%초과	합계
2010년	103 (45.2%)	22 (9.6%)	74 (32.5%)	18 (7.9%)	10 (4.4%)	1 (0.4%)	0 (0%)	228
2014년	71 (31.4%)	22 (9.7%)	74 (32.7%)	33 (14.6%)	21 (9.3%)	4 (1.8%)	1 (0.4%)	22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www.info.nec.go.kr), 재구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의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며, 약 1/3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구 여성의원이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여성대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선거구제에 주목하였다. 선거구제는 크게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system)와 중·대선거구제(multi-member district system)⁴⁾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중·대선거구제는 득표 순위에 따라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 소선거구제는 특정 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에게 유리하며 지역주의 정치를 심화시킬 수 있다(Farrell 2011). 또한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선거제도로 알려져 있다(Duverger 1954).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이러한 단점이 완화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가져오는 효과는 첫째,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가 완화되어 결과적으로 지역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안철현 2011; 김순은 2010; 정용하 2010).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과 밀착된 정당, 즉 지역주의 정당⁵⁾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정용하 2010).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복수의 대표자가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주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는 사표(死票) 비율을 낮출 수 있다

4)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5) 지역주의 정당이란 특정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영남의 지역주의 정당은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호남의 지역주의 정당은 국민의당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용하 2010; 조성대 2010). 소선거구제에서는 1명의 당선인에 대한 투표만 의석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이준한 2010).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2인 이상의 당선인이 선출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 비해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져 사표 비율이 낮아진다(정용하 2010; 조성대 2010). 셋째, 중·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을 비롯한 소수집단(minority group)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Fortin-Rittberger & Rittberger 2014; Schwindt-Bayer & Mishler 2005; King 2002; Arceneaux 2001; Hogan 2001; Matland 1993; Matland & Brown 1992).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의원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최다 득표를 얻지 않아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당의 후보가 아닌 소규모 정당이나 신진 후보자들도 당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중·대선거구제의 효과 중 본 연구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의 여성대표성 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였고 기초 의회에 여성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를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중·대선거구제가 기초의회의 여성대표성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준한 2010; 조성대 2010; 황아란 2007). 중·대선거구제가 여성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가진 제도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국내 연구들은 두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주로 서술적(descriptive) 분석방법에 의존하고 있다(이준한 2010; 정용하 2010; 조성대 2010; 김원홍 외 2007; 황아란 2007).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전 선거와 이후 선거의 여성의원 비율을 비교하거나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율을 광역의회와 비교하는 것이다⁶⁾. 이렇게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여성의원의 증가율을 서술적 방식으로 단순 비교할 경우 여성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구제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 두 번째 한계점은 몇몇 선행연구의 경우 분석대상이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황아란 2007). 분석대상을 특정 지역에 한정할 경우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중·대선거구제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후보자 특성을 분석모형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6) 중·대선거구제는 2006년부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도입되었고 광역의회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고 있다.

미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며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결과
의 일반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II.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비례대표제⁷⁾, 여성의무공천제⁸⁾와 같은 몇몇 선거제도는 여성대표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외에도 여성대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제도로
중·대선거구제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2006년 치러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다음에서 중·대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과의 관계, 우리나라 선거구제
현황, 그리고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1. 선거구제의 특성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에 따라 크게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system)와 중·대선거구제(multi-member district system)로 나뉜다. 소선거구제
는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서 한명의 최다득표자만이 당선된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것으로 득표 순위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다.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수를 선거구 크기(district magnitude)라고 정의하며(Farrell 2011), 적은 수의 인원을 선출할
수록 선거구 크기가 작다고 하고, 많은 수의 의원을 선출할수록 선거구 크기가 크다고 말한다.

이론적으로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여성대표성이 높아진다(Fortin-Rittberger &
Rittberger 2014; Farrell 2011; Schwindt-Bayer & Mishler 2005; King 2002;
Arceneaux 2001; Hogan 2001; Matland 1993; Matland & Brown 1992). 그 이유는
후보자 추천 단계와 선거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 추천 단계를 살펴보면
선거구당 단 한 명만이 선출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정당은 선거구마다 한 명의 후보를 공천하

7) 비례대표제 관련 법령 중 여성대표성과 연관이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8)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게 된다. 따라서 정당 내 후보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하여 정당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Matland 1993; Welch & Studlar 1990).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당 2인 이상이 당선되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공천한다. 이럴 경우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여성이 후보로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정당들이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성격의 후보자들을 공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Matland & Brown 1992).

선거 단계에서도 선거구 크기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진다. 정치학자 뒤베르제(Duverger)에 따르면 소선거구제에서는 군소정당이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당체제가 형성된다(Duverger 1954). 이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 dead vote)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Duverger 1954: 226). 유권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거대 정당이나 다수집단(majority group)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유권자들의 이러한 심리적 경향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만 선출되는 소선거구제일 경우에 더 강해진다(Duverger 1954: 216-228). 당선자 이외의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의원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를 얻지 않아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지도가 높은 정당의 후보가 아닌 소규모 정당이나 여성 후보자들도 당선이 가능해지고 이들에게 던진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이준한 2010; 정용하 2010). 즉, 사표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유권자들이 좀 더 다양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일 때 여성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여성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선거구제 및 선거구 현황

우리나라는 2006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였다⁹⁾. 우리나라의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2~4인의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¹⁰⁾). 지역주의 정치문화와 거대

9) 기초의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이다. 비례대표의원은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즉,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정당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에 있어 후보자보다는 정당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비례대표의원은 후보자의 특성을 중요한 통제변수로 설정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정당의 의석 점유를 완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이다(안철현 2011; 김순은 2010).

우리나라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지역에 따라 선거구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모든 지역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인원이 달라진다. <표 2>의 전국 선거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인, 3인, 4인 선거구가 존재하며 지역마다 선거구 분포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서울의 경우 2인 선거구가 114개, 3인 선거구가 46개, 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없으며 선거구당 선출되는 기초의회의원이 2.29명이다. 반면, 2010년 강원도는 2인 선거구가 10개, 3인 선거구가 38개, 4인 선거구가 3개로 평균적으로 한 선거구당 선출하는 기초의회의원이 2.86명으로 서울에 비해 선거구당 선출되는 의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현황(지역구)

	2010년					2014년				
	소계	2인	3인	4인	평균	소계	2인	3인	4인	평균
총 계	1,039	629	386	24	2.42	1,034	612	393	29	2.44
서울	160	114	46	0	2.29	159	111	48	0	2.30
부산	70	52	18	0	2.26	70	52	18	0	2.26
대구	44	30	14	0	2.32	44	30	14	0	2.32
인천	40	23	17	0	2.43	38	16	19	3	2.66
광주	25	16	9	0	2.36	25	16	9	0	2.36
대전	21	8	13	0	2.62	21	9	12	0	2.57
울산	19	14	5	0	2.26	19	14	5	0	2.26
경기	151	90	61	0	2.40	155	91	62	2	2.43
강원	51	10	38	3	2.86	51	11	36	4	2.86
충북	46	26	18	2	2.48	47	28	18	1	2.43
충남	61	36	20	5	2.49	55	28	20	7	2.62
전북	72	43	29	0	2.40	71	40	31	0	2.44
전남	82	44	29	9	2.57	82	44	29	9	2.57
경북	102	60	41	1	2.42	102	60	41	1	2.42
경남	95	63	28	4	2.38	95	62	31	2	2.3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www.info.nec.go.kr), 재구성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공직선거제도 정보: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254/401.do?menuNo=200054&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 (검색일: 2016.08.05).

이처럼 지역에 따라 선거구당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다르며, 이는 시·군·자치구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수, 즉 선거구 크기에 차이¹¹⁾가 존재하며 이러한 선거구 크기의 차이(variation)는 각 기초자치단체 간 여성대표성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선거구 크기별 여성 당선인 숫자와 여성의원인 차지하는 비율을 <표 3>에서 정리하였다. 선거구 크기별로 여성의원인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에 있어 먼저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통합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유형별(시·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3>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구 크기별 여성의원 수와 비율

(단위: 명, %)

		2인	3인	4인
기초자치 단체 유형	구(區)	67 (13.29%)	73 (21.35%)	해당사항 없음*
	시(市)	49 (9.65%)	68 (13.82%)	5 (12.50%)
	군(郡)	2 (0.81%)	8 (2.47%)	2 (3.57%)
전체 기초자치단체		118 (9.38%)	149 (12.87%)	7 (7.2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www.info.nec.go.kr), 재구성. *구(區)에는 4인 선거구가 없다.

먼저, 기초자치단체를 전체로 통합하여 살펴보면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은 118명으로 2인 선거구에서 선출된 전체 의원 중 9.38%를 차지한다. 3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은 149명이며 12.87%로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 비율보다 높다. 4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은 7명이며 7.29%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전체의 경우 선거구 크기별 여성 의원 비율은 3인 선거구에서 가장 높고, 2인 선거구가 그 다음으로 높으며, 4인 선거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예를 들어 몇몇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선거구 크기를 비교해보면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서울 중구는 2인 선거구 4개로 평균 선거구 크기가 2.0인 반면, 서울 성동구는 3인 선거구 4개로 평균 선거구 크기가 3.0이다. 강원 동해시는 3인 선거구 1개, 4인 선거구 1개로 평균 선거구 크기가 3.5인 반면, 강원 홍천군은 2인 선거구 2개, 3인 선거구 1개로 평균 선거구 크기가 2.3이었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평균 선거구 크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표 2>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선거구 크기를 비교하였는데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도 비교해 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市)의 평균 선거구 크기는 2.43, 군(郡)의 평균 선거구 크기는 2.56이었으며 자치구(區)의 평균 선거구 크기는 2.31이었다. 자치구의 평균 선거구 크기가 가장 작으며, 그 다음이 시이며 군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금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區)의 경우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67명으로 13.29%를 차지하며, 3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73명으로 21.35%이다.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보다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군(郡)의 경우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이 2명으로 0.81%, 3인 선거구에서는 8명으로 2.47%, 4인 선거구에서는 2명으로 3.57%를 차지하여,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함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市)의 경우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이 49명으로 9.65%, 3인 선거구에서는 68명으로 13.82%, 4인 선거구에서는 5명으로 12.50%를 차지하여, 2인 선거구에 비해서 3인과 4인 선거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인과 4인 선거구를 비교하면 3인 선거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4인 선거구에 비하여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거구 크기별 여성의원 비율을 비교한 결과 시·군·구 모두에서 3인과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인과 4인 선거구의 경우 군(郡)에서는 4인 선거구가 시(市)에서는 3인 선거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우리나라 선거구제의 또 다른 특징은 선거구획정 권한이 입법부에 있다는 것이다. 시·도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은 권고 역할을 할 뿐 선거구획정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시·도의회가 내린다(강민제·윤성이 2007).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각 시·도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도별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시·도의회에 제출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각 시·도의회의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로 제정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¹³⁾. 그러나 선거구획정에 최종적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목적을 실현시키기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선거구 크기가 작아질수록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커질수록 군소정당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있어 거대 정당과 군소정당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거대 정당이 상대적으로 선거구 획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정당의 선거 전략에 맞게 선거구가 결정될 가

12) 다만, 군(郡)지역의 모든 선거구와 시(市)지역의 4인 선거구의 경우 여성의원 수 자체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비율을 통한 비교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모두에서 2인 선거구에 비해 3인과 4인 선거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13)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능성이 높다(강민제·윤성이 2007; 박재욱 2007).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권고안과 최종적으로 채택된 선거구획정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표 4〉 선거구획정안(案)과 최종 결정 비교

	획정안	최종 결정	변화
2인 선거구	366	610	+244
3인 선거구	379	379	0
4인 선거구	161	39	-122
계	906	1028	+12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6)

〈표 4〉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선거구획정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처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案)에서는 2인 선거구가 366개, 3인 선거구가 379개, 4인 선거구가 161개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2인 선거구가 610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4인 선거구가 39개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의회의 다수 세력(majority group)인 거대 정당의 이해에 맞게 선거구획정안이 대폭 수정 의결된 것이다(강민제·윤성이 2007; 박재욱 2007; 고선규 2006).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대선거구제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강민제·윤성이 2007). 그뿐만 아니라, 2인 선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의도한 군소정당, 소수집단의 지방의회 진출 효과가 미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안철현 2011; 이준한 2010; 조성대 2010; 강민제·윤성이 2007).

3. 선행연구 검토

국외에서는 선거구 크기와 여성대표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Fortin-Rittberger & Rittberger 2014; Farrell 2011; Schwindt-Bayer & Mishler 2005; King 2002; Arceneaux 2001; Hogan 2001; Matland 1993; Matland & Brown 1992; Studlar & Welch 1991; Welch & Studlar 1990; Rule 1981). 국외 선행연구들은 미국과 유럽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단일 국가 사례를 분석한 연구(King 2002; Arceneaux 2001; Hogan 2001; Matland & Brown 1992)와 여러 국가를 사례로 한 연구(Fortin-Rittberger & Rittberger 2014; Welch & Studlar

1990; Rule 1981)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론적으로는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여성대표성이 높아진다고 한다(Fortin-Rittberger & Rittberger 2014; Farrell 2011; Schwandt-Bayer & Mishler 2005; King 2002; Arceneaux 2001; Hogan 2001; Matland 1993; Matland & Brown 1992). 그러나 경험적 분석결과는 선거구제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다.

우선, Rule(1981)은 여성대표성이 낮은 원인을 찾는 연구에서 비(非)비례적 선거제도¹⁴⁾가 낮은 여성대표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비(非)비례적 선거제도로는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대표적이다(Farrell 2011; Duverger 1954). Rule(1981)의 연구에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통해서 여성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여성의원수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비(非)비례적 선거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의석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전체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Rule 1981). Matland & Brown(1992)의 연구에서는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 2개 주(North Carolina, New Hampshire)의 1968~1990년 여성의원 비율에 선거구 크기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2개 주(州) 모두에서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tland & Brown 1992). King(2002)은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제도가 변화했을 때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4개 주 중 1개 주를 제외한 3개 주에서 소선거구제로의 변화가 여성의원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King 2002). 즉, 선거구 크기가 작아지면 여성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들은 여성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들을 연구하였는데 다양한 요인들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하여 지역적 특성, 유권자 및 후보자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Hogan(2001)은 문화, 제도, 선거, 구조, 인구학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여성후보 당선결정 모형을 만들어 분석하였으며, Arceneaux(2001)는 1974~1996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38개 주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선거구 크기는 여성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udlar & Welch(1991)의 연구 결과는 다르다. 이들은 영국 런던의 지방선거

14) 비(非)비례적 선거제도(non-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비례적 선거제도(proportional representation)와 반대되는 개념의 선거제도이다. 소선거구제가 대표적인 비비례적 선거방식이며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인 비례적 선거방식이다. 비례적 선거방식에서는 어떤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비비례적 선거방식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자가 받은 표는 사표(dead vote)가 된다.

를 대상으로 선거구 크기가 여성대표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선거구 크기가 여성대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tudlar & Welch 1991). 이들은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여성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Studlar & Welch 1991).

<표 5>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도)	연구초점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연구결과
Rule (1981)	여성 의회진출의 사회정치적 장애요인	미국 50개 주의회와 국회, 19개국 국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非)비례적 선거제도일수록 여성대표성이 낮아짐
Matland & Brown (1992)	선거구 크기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미국 2개 주(州)를 대상으로 횡단면 회귀분석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여성대표성이 높아짐
King (2002)	선거구제 변화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화한 주정부와 같은 기간 변화가 없던 주정부를 대상으로 단절적 시계열 분석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제도 변화는 여성대표성에 부정적 영향
Hogan (2001)	여성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50개 주의회의원 선거 당선인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여성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짐
Arceneau x (2001)	여성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38개 주를 대상으로 횡단면 회귀분석	선거구 크기가 큰 지역일수록 여성대표성이 높아짐
Studlar & Welch (1991)	선거구 크기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영국 런던 자치구 의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	선거구 크기가 커지는 것이 여성의 당선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음
정용하 (2010)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	3~5회 지방선거 결과를 서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여성의원이 증가함
황아란 (2007)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	4회 지방선거 중 부산시 선거결과를 서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이준한 (2010)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	9~12대 국회의원선거와 4회 지방선거 결과를 서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중이 높아졌으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영향으로는 볼 수 없음
조성대 (2010)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	3~5회 지방선거 결과를 서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	기초의회에서 나타난 여성의원 비율 증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로 볼 수 없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중·대선거구제의 의미와 효

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들도 국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제가 여성대표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혼재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용하(2010)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던 제3회 동시지방선거 결과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 제5회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촉구하였고 여성대표성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황아란(2007)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여성의원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결론짓는다. 이 연구는 선거구 크기가 정당의 여성 후보자 공천과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찾지 못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준환(2010)은 2006년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여성의 의회진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확실하며, 선거구제 이외의 다른 요인이 여성의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조성대(2010)의 연구에서도 2006년과 2010년에 여성 후보자와 여성당선인이 증가한 것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결과라기보다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은 다른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연구방법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서술적(descriptive)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거구 크기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의회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회, 경제, 정치 요인들을 통제한 인과관계모형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이 서술적 연구방법에 그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 선행연구들은 분석대상이 지방정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 연구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의 의회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후 선거구제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연구가 가진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인과관계 추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선거구제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종속변수는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¹⁵⁾. 독립변수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 크기이다.

여성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인 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도시화율, 유권자의 교육수준, 인구수,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 유형(자치구·시·군), 여성 투표자 비율, 투표자 평균 연령을 사용하였고, 후보자 특성으로 여성후보자 평균 학력, 여성후보자 주요 정당 공천 비율, 여성후보자 정치 경력 비율을 포함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15) 가장 최근의 기초의회의원선거는 2014년에 이루어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이다. 그러나 분석대상을 2010년으로 한 이유는 주요 선거제도변화와 데이터 수집 가능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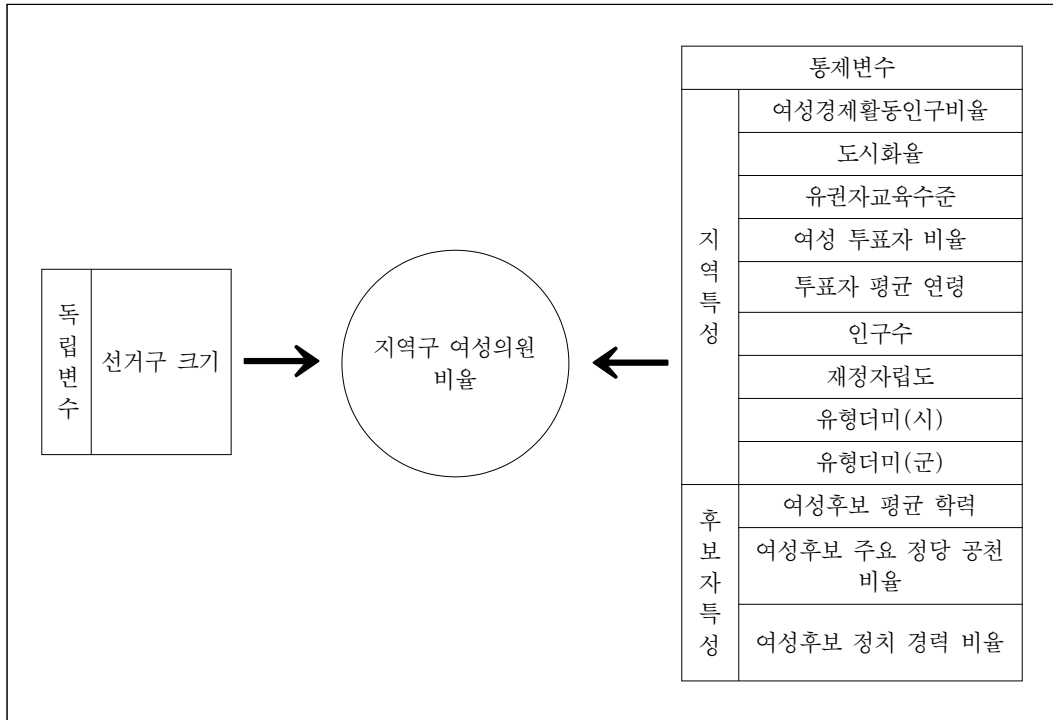
지방선거제도 변화(2006~2014년)

선거 연도	선거제도 변화
2006년(제4회)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2010년(제5회)	여성의무공천제 도입
2014년(제6회)	사전투표제 도입

자료: 송광태(20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여 재구성.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주요한 제도변화는 2006년과 2010년에 주로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이 중에서 비례대표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크게 향상시킨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도 여성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이준환, 2010; 정용하 2010; 조성대 2010; 황아란 2007). 2010년에는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었다. 즉, 2006년과 2010년 선거에 여성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유권자들이 부재자투표 신고 없이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여성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대표성 증가와 관련된 제도변화가 주로 이루어진 2006년과 2010년 중 분석모형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2010년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분석 단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이며 분석 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중 2010년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가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여성후보가 출마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여성 후보자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후보자와 관련된 변수(학력, 정당, 정치 경력)를 통제변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로 17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분석대상으로 선택되었으며 그 중 2개 기초자치단체¹⁶⁾는 통제변수 중 결측값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총 기초자치단체는 173개¹⁷⁾이다.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경북 울진군과 충북 음성군 여성 후보자의 학력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17) 2010년에 경남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합된 이후의 창원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변수 설정

1) 독립변수: 선거구 크기

선거구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수를 의미한다.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많은 의원을 선출하고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적은 수의 의원을 선출한다. 이론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진다(Fortin-Rittberger & Rittberger 2014; Schwindt-Bayer & Mishler 2005; King 2002; Arceneaux 2001; Hogan 2001; Matland 1993; Matland & Brown 1992). 선거구 크기가 크면 정당과 유권자들의 선택이 여성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정당 내의 후보자 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후보들이 선택될 수 있다(Matland 1993; Welch & Studlar 1990). 투표자들 또한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사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후보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고 여성과 같은 소수집단의 후보자들이 득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용하 2010; Duverger 1954). 비록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여성대표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즉, 선거구 크기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거구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을 최소 2인, 최대 4인을 선출하고 있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는 최소 2개에서 최대 14개의 선거구로 나뉜다(2010년 동시지방선거 기준). 예를 들어, 부산 중구는 3인 선거구 2개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경기도 수원시는 2인 선거구 12개, 3인 선거구 2개로 나뉜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선거구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수의 평균값을 각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 크기로 사용한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 크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출하는 총 의원수를 총 선거구 수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부산 중구는 3인 선거구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2개의 선거구에서 총 6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부산 중구의 평균 선거구 크기는 $3(=6\div 2)$ 이다. 2인 선거구 12개와 3인 선거구 2개로 이루어진 경기도 수원시는 총 14개의 선거구에서 총 30명의 의원을 선출하므로 $2.14(=30\div 14)$ 라는 선거구 크기 값을 갖게 된다¹⁸⁾.

18) 이러한 선거구 크기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만약 2인 선거구 12개와 3인 선거구 2개로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 A와 2인 선거구 13개와 4인 선거구 1개로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 B가 존재할 경우, 본 연구에서는 A, B의 선거구 크기가 $2.14(30\div 14)$ 로 계산되어 선거구 크기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즉, 기초자치단체 A와 B는 선거구 구성(2인, 3인, 4인 선거구 개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크기가 같은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한계점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 크기가 같더라도 선거구의 구성이 다를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하지 못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기초자치단체를

가설 1.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2) 통제변수

가) 지역적 특성

각 기초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징은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female labor force)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여성의원 후보자 자질을 갖춘 인력풀(pool)이 커질 수 있다(Norrander & Wilcox 1998; Rule 1981).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Arceneaux 2001). 의원 자질을 갖춘 여성의 기준에는 교육 수준, 직업, 사회적 성공 등이 있다(Norrander & Wilcox 1998; Darcy et al. 1987; Rule 1981).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일수록 여성리더의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가 풍부하고 정치적 인맥(political ties) 형성을 통하여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Darcy et al. 1987). 여성의원의 경력지속성을 연구한 김원홍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의원들에게 공천 성공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전문성 등 타 분야에서의 경력(26.2%)'을 꼽았다. 이렇듯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여성정치리더의 잠재력을 갖춘 후보자 풀(pool)과 직결된다. 특히 후보자의 자질은 선거에서 득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양질(良質)의 여성의원 후보자가 많을수록 여성당선인이 많아지게 된다¹⁹⁾. 즉, 경제활동 여성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양질(良質)의 여성의원 후보자 풀(pool)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당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여성의 성평등 의식이 강할 것이다. Schwindt-Bayer & Mishler(2005)는 성평등 의식을²⁰⁾ (i)여성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석단위로 사용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 크기를 계산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선거구제의 특성과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 후보자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에 적합한 분석단위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은 선거구 크기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 그리고 여성후보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구 크기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과 여성후보자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여야 한다.

19) 여성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이 당선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여성대표성을 연구하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잠재적 여성 후보자 풀(pool)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Smith et al. 2012; Arceneaux 2001; Rule 1981).

(ii)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iii)출산이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의식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Schwindt-Bayer & Mishler(2005)는 성평등 의식(feminist attitudes)이 강한 지역일수록 여성대표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성평등 의식은 여성의 교육과 경제력을 중시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학력의 여성 경제 활동가에게서 성평등 의식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성평등 의식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강한 성평등 의식은 선거에서 여성의원을 지지하는 투표행위와 연결되어 더 많은 여성의원이 기초의회로 진출할 것이다.

지역의 도시화 정도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Stiles & Schwab 2009; Arceneaux 2001; Hogan 2001; Norrander & Wilcox 1998; Matland & Brown 1992; Darcy et al. 1987; Rule 1981).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투표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연구결과 비도시지역에 비해 도시지역 유권자들이 여성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Stiles & Schwab 2009; Rule 1981). 이는 도시화 정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인구 구성이나 문화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투표성향, 여성 후보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승희 1993; 황아란 2002). 구체적으로, 도시화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많고 성역할에 대해 개방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도시화 정도가 낮은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문화가 강하게 나타난다(Stiles & Schwab 2009; 황아란 2002).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가 낮으며(Arceneaux 2001; Hogan, 2001; Darcy et al. 1987) 이는 지역 정치에 있어 낮은 여성 대표성으로 연결된다.

다음으로 지역 유권자의 교육수준이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tiles & Schwab 2009; Hogan 2001; Karnig & Walter 1976). 고학력 여성일수록 정치참여에 적극적이고 여성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학력 남성일수록 여성의 정치적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이승희 1993; Karnig & Walter 1976).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역의 교육수준이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iles & Schwab 2009; Hogan 2001; Norrander & Wilcox 1998).

20) Schwindt-Bayer & Mishler(2005)는 이를 'feminist attitudes'라고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성평등 의식'으로 해석하여 사용한다. Schwindt-Bayer & Mishler(2005)는 성평등 의식을 다음의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1) 대학은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2) 여성은 아이를 가져야 한다. 3)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다. 세 가지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강하다고 정의한다.

가설 2.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도시화 정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유권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지역 투표자의 성별 비율이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투표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며 이를 '성별 기반 투표(gender-based voting)'라고 한다(Holli & Wass 2010; Brians 2005; Sanbonmatsu 2002; Dolan 2001; Plutzer & Zipp 1996). 성별 기반 투표란 선거에서 투표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성향을 말한다(Holli & Wass 2010). 이러한 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며 선호 정당을 우선하기도 한다(Holli & Wass 2010; Brians 2005; Sanbonmatsu 2002). Brians(2005)의 연구에 따르면 공화당 남성후보와 민주당 여성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경우 공화당을 지지하는 여성투표자들이 공화당 남성후보보다 민주당 여성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연구로는 김원홍(2010)의 연구에서 남녀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비교하였는데 여성후보 당선에 있어 남성유권자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여성유권자의 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할 때 여성 투표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이 기초의원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투표자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부장제에 기초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적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연구한 이승희(1993)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게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역할에 대해 개방적이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 투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 선행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핀란드의 선거결과를 분석한 Holli & Wass(2010)의 연구에서는 투표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에게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별 기반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Holli & Wass 2010). 그러나 여성당선인이 많았던 미국의 1992년 선거를 분석한 Dolan(2001)의 연구에서는 투표자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연구한 이승희(1993)의 연구에 근거하여 투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5. 투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6. 투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인구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유형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보여주는 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자주 사용된다. 이 변수들은 지역의 규모, 경제력, 발전정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을 대표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²¹⁾.

가설 7.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기초자치단체 유형(시·군·자치구)이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후보자 특성

후보자의 특성은 후보자들의 당선경쟁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 왔다. 기초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여성 후보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의 개인적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이 많이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특징으로 첫째, 후보자의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공직임용에 있어 교육수준을 중시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전통은 선거에서도 나타나는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학력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생각한다(김석우 외 2008). 또한 교육수준은 후보자 역량 지표(indicator)로 활용된다. 최봉기(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의원의 교육수준이 의정활동 생산성과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역량 지표 중 하나인 교육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석우 외(2008)의 연구에서도 후보자의 학력이 당선여부와 득

21)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 재정자립도, 유형과 같은 변수들은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통제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되지만 그 영향의 방향, 즉, 정(+)의 효과인지 또는 부(-)의 효과인지에 대한 가정은 하지 않는다.

표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해당 기초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후보자 특징으로 주요 정당 공천여부를 들 수 있다. 소속 정당과 후보자 당선여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tland(1993)는 여성후보가 속한 정당의 규모가 당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고 주장한다. 황아란(2002)은 국회의원의 당선경쟁력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주요 정당 공천 여부가 당선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²²⁾. 김원홍(2010)의 연구에서는 투표자들이 여성 후보자에게 투표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여성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듯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은 당선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며 특히, 남성에 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 후보자에게 있어서 주요 정당의 브랜드 가치는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황아란 2002).

세 번째 후보자 특징으로 정치 경력을 들 수 있다. 후보자 경력 가운데 정치 경력은 유권자에게 준비된 후보자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중 지방의회의원 경력이나 정치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이미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을 것이며 이러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김원홍(2010)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여성 후보자의 지역구 활동과 정치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보자가 의원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이나 정치인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가설 10. 여성 후보자들의 평균 학력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 주요 정당²³⁾의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지방의원 및 정치인 경력을 가진 여성 후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 것이다.

22) 황아란(2002)의 연구에서 주요 정당으로 분류된 정당은 다음과 같다. 13대 총선은 민정당, 통일민주당, 평민당, 공화당, 14대 총선은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15대 총선은 신한국당, 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민련, 16대 총선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다.

23) 2010년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장 규모가 큰 주요 정당이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체 후보자의 약 55%를, 나머지 소수 10개 정당에서 약 15%를 공천하였으며, 나머지 약 30%는 무소속이었다.

<표 6>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산출 방법	출처	
종속 변수	여성의원 비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선거통계시스템	
독립 변수	선거구 크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 평균 (총 지역구 의원 수 ÷ 총 선거구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변수	지역적 특성	여성경제활동 인구 비율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인구 비율(%)	국가통계포털 (제18차인구총조사)
		도시화율	지역 인구 중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통계포털
		유권자 교육수준	만 19세 이상 인구의 평균 학력 점수 (초졸이하=1점, 중졸이하=2점, 고졸이하=3점, 대졸이하=4점, 대학원이상=5점)	국가통계포털 (제18차인구총조사)
		여성 투표자 비율	투표자 중 여성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투표자 평균 연령	투표자들의 평균 연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인구수	주민등록인구수	국가통계포털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	국가통계포털
		유형더미(시)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시=1, 나머지=0	
		유형더미(군)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군=1, 나머지=0	
	후보자 특성	여성후보 평균 학력	여성 후보자의 평균 학력 점수 (초졸이하=1점, 중졸이하=2점, 고졸이하=3점, 대졸이하=4점, 대학원이상=5점)	선거통계시스템
여성후보 주요 정당 공천 비율		여성 후보자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후보자 비율(%)	선거통계시스템	
여성후보 정치 경력 비율		여성 후보자 중 지방의회의원, 정치인 경력을 가진 후보자 비율(%)	선거통계시스템	

2010년 지방선거 정당별 기초의회의원 공천 현황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무소속
전체	5,822	1,901	1,285	241	224	6	88	32	140	87	7	47	27	1,737
여성	551	190	149	12	77	1	25	2	12	9	1	3	2	6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www.info.nec.go.kr), 재구성

I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7>과 같다. 분석에 사용한 기초자치단체는 2010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가 있었던 173개 기초자치단체이다²⁴⁾.

종속변수인 여성의원 비율²⁵⁾을 살펴보면, 여성 후보자는 있었지만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지역구 의원 전체 중 절반을 여성이 차지한 기초자치단체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4) 2010년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던 기초자치단체와 여성후보가 적어도 1명 이상 나왔던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여성후보자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없는 기초자치단체 특성 비교

	여성후보 있는 기초자치단체 (n=175)*	여성후보 없는 기초자치단체 (n=53)	t-test 유의확률
선거구 크기	2.49	2.65	.00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	46.97	53.61	.72
도시화율(%)	83.91	50.54	.05
유권자교육수준	2.92	2.34	.21
여성 투표자 비율(%)	50.40	50.82	.20
투표자 평균 연령	43.28	47.14	.38
인구수	260,223.31	65,711.55	.00
재정자립도(%)	31.24	18.48	.00

*175개 기초자치단체 중 2개가 결측치 문제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73개가 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여성후보자가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와 없었던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 크기 및 주요 사회경제적 특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 결과 여성후보가 없었던 기초자치단체는 여성후보가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선거구 크기가 크고, 도시화율은 낮으며, 인구수가 적고, 재정자립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율과 인구수, 재정자립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여성후보가 없었던 기초자치단체는 대체로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후보자가 한명도 없었던 53개 기초자치단체 중 46개가 군(郡)이었다.

25) 여성의원 비율 산출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인 강남구 기초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의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여성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2명, 비례대표의원 2명으로 총 4명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지역구 의원 중 여성지역구 의원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여성의원 비율은 $(\frac{\text{총여성지역구의원수}}{\text{총지역구의원수}})$ 로 산출한다. 강남구의회 여성의원 비율을 계산하면

11.11% $(= \frac{2}{18} * 100)$ 이 된다.

〈표 7〉 기술통계량

(n=173)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여성의원 비율(%)	.00	50.00	12.26	10.28
선거구 크기	2.00	3.50	2.49	0.38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	36.58	63.17	46.97	5.76
도시화율(%)	28.21	100.00	83.91	21.32
유권자교육수준	1.97	3.86	2.92	0.40
여성 투표자 비율(%)	44.82	54.56	50.40	1.73
투표자 평균 연령	36.87	51.89	43.28	3.16
인구수	21,323	1,073,149	260,223.31	208,006.40
재정자립도(%)	8.95	82.86	31.24	17.13
유형터미(시)	0	1	0.44	0.50
유형터미(군)	0	1	0.17	0.37
여성후보 평균 학력	1.00	5.00	3.95	0.70
여성후보 주요 정당 공천 비율(%)	.00	100.00	62.64	33.39
여성후보 정치 경력 비율(%)	.00	100.00	54.58	37.28

선거구 크기의 평균은 2.49로 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거구당 평균 2.49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2인 또는 3인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됨을 알 수 있다. 2010년 당시 2인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60.5%, 3인 선거구가 37.1%를 차지하였다²⁶⁾. 선거구 크기의 최솟값은 2로 선거구당 평균 2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최댓값은 3.5로 선거구당 평균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수들 중 지역적 특성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분석에 포함된 173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평균은 46.97%로 평균적으로 여성인구의 약 47%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은 평균 83.91%로 기초자치단체 인구의 약 84%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교육수준 평균은 2.92로 3점에 가까워 평균적으로 고졸 정도의 학력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평균 학력이 가장 낮은 지역은 1.97로 중졸 정도의 학력 수준이며, 가장 높은 학력 점수는 3.86으로 대졸에 가까운 학력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는 최솟값이 21,323명 최댓값이 1,073,149명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 규모에 있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도 최솟값이 8.95%, 최댓값이 82.86%로

26) 본 논문의 〈표 2〉 참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와 높은 기초자치단체 간 차이가 크다. 기초자치단체 유형은 시·군·자치구를 구분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17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시는 76개(44%), 군은 29개(17%)이고 나머지 68개(39%)는 자치구이다. 여성 투표자 비율의 경우 평균 50.4%로 전체 투표자 중 남성과 여성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후보자 특성 변수이다. 여성 후보자 학력 점수 평균은 3.95로 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지역 특성 변수 중 하나인 유권자 교육수준(평균 2.92)과 비교할 때 여성 후보자들의 학력이 평균 유권자 교육수준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정당 공천 비율 평균은 62.64%로 약 2/3의 여성 후보자들이 주요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 경력자 비율은 평균 54.58%로 과반의 여성 후보자들이 지방의원이나 정치인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선거구 크기가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선거구 크기가 여성의원 비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 지역변수인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 도시화율, 기초자치단체 유형, 그리고 후보자변수인 여성 후보자 학력과 정치 경력 비율이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359$ 로 연구모형이 기초의회 간 여성의원 비율의 변이(variation)를 약 36% 설명하고 있다.

선거구 크기는 유의수준 0.05에서 여성의원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의 평균 선출 의원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한다. 선거구 크기의 비표준화계수값은 4.277로 선거구 크기가 1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약 4.3%p 증가한다. 현재 분석에 사용된 173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 평균이 약 12.26%인 것을 고려할 때 4.3%p 증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것이다²⁷⁾.

27)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더 선출할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4.3%p 증가하여 16.56%가 되며 이는 2010년 여성의원 비율 평균인 12.26%에 비해 여성의원 비율이 약 35% ($= \frac{16.56 - 12.26}{12.26}$) 증가하는 것이다.

〈표 8〉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선거구 크기	4.277**	(1.949)	.157
통제변수	지역적 특성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	.463*	(.236)	.260
		도시화율	.138*	(.079)	.285
		유권자교육수준	3.065	(5.101)	.119
		여성 투표자 비율	-.687	(.447)	-.116
		투표자 평균 연령	-.324	(.391)	-.100
		인구수	.000	(.000)	.068
		재정자립도	.014	(.071)	.023
		유형더미(시)	-2.857	(2.047)	-.138
		유형더미(군)	-7.016**	(3.321)	-.256
통제변수	후보자 특성	여성후보 평균 학력	2.235**	(1.041)	.152
		여성후보 주요 정당 공천 비율	.000	(.022)	-.001
		여성후보 정치 경력 비율	.041**	(.019)	.147
		(상수)	-1.888	(33.956)	
		R ²	.359		
		F 값	6.849***		
		n	173		

***p<0.01 **p<0.05 *p<0.1

통제변수 중에서는 지역적 특징에 해당하는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과 도시화율이 여성의 원 비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중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와 도시화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변수 중 도시화율의 표준화계수값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에 도시화율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유형을 살펴보면 자치구(區)와 시(市) 사이에는 여성의원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자치구(區)와 군(郡)을 비교할 때 자치구에 비해 군 지역의 여성의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아란(2010)은 군 지역의 낮은 여성의원 비율이 도시화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도시화 수준이 낮은 군 지역의 정치문화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도시화 수준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도시화 수준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도 군 지역일 경우 특히 여성의원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화율 이외의 군

지역 고유의 지역적 특성이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반면, 유권자 교육수준, 여성 투표자 비율, 투표자 평균 연령 등은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수 중 후보자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로 여성 후보자의 학력과 정치 경력이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후보자들의 평균 학력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여성 후보자 중 정치 경력(지방의회 의원 경력, 정치인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많을수록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정래·박지영(2011)은 지방선거를 거듭할수록 지방의회의원에 도전하는 여성 후보자들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2006년과 2010년 동시지방선거를 비교하여 볼 때 2010년 선거에서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 후보자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력 측면에서 지방의원 경력을 가진 여성 후보자 숫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여성 후보자의 학력과 정치 경력이 여성의원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더 많은 여성들이 기초의회로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반면, 주요 정당 공천은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즉, 여성 후보자에게 있어 소속 정당이라는 개인의 외적요인보다 개인의 내적요인인 학력이나 경력이 당선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및 함의

우리나라는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당 2~4인의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선거구제 도입 이후 선행연구들은 이 제도가 여성대표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효과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에서 여성대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이준한 2010; 조성대 2010; 황아란 2007).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거구 크기는 여성의원 비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즉 선거구당 선출 의원 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기초의회 여성

28) 주요 정당 공천이 여성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인 학력과 정치인 경력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즉, 주로 고학력과 정치인 경력을 갖춘 여성후보가 주요 정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후보 평균 학력과 정치인 경력 비율을 모형에서 통제할 결과 주요 정당 공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의원 비율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지방의회로 여성이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며,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대선거구제가 여성대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 결정과정에서 선거구획정 권한이 시·도의회에 부여되어 있어 선거구 크기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의원 및 정당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해당사자인 시·도의원들이 선거구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거구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강민제·윤성이 2007). 실제로 2006년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4인 선거구를 늘리는 안(案)을 제안하였지만 시·도의회에서 선거구를 조례로 확정하면서 4인 선거구들이 2인 선거구로 분할되었다. 다시 말해서 거대 정당의 이해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案)이 수정된 것이다(강민제·윤성이 2007; 박재욱 2007; 고선규 2006). 이러한 이유로 2010년 기준 2인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의 60.5%, 3인 선거구는 37.2%를 차지하는 데 비해, 4인 선거구는 2.3%에 불과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인 선거구보다 3인 또는 4인 선거구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선거구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도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 중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율과 도시화율이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먼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기초의회로 진출하는 여성이 많아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초의회의 여성대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양질(良質)의 잠재적 여성 정치인이 많아질 수 있으며, 둘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유권자일수록 성평등 의식(feminist attitudes)이 강하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때 함께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허물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많은 여성 관리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지역적 특성으로 도시화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여성대표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하지만 2010년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조차 배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는 대체로 도시화율과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군(郡)지역에 분포해 있다. 여성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군·구 모든 지역에서 여성대표성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여성후보자를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 후보자 특성 중 학력과 경력이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영향을 주었다. 여성 후보자의 학력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이거나 정치 경력을 갖춘 여성 후보자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경력은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결정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후보자가 많을수록 여성 당선인이 증가한다. 즉, 여성 후보자의 질적 성장이 곧 여성의원의 양적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대표성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는 양질(良質)의 여성 정치 엘리트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교육·양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는 여성 정치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 인재들이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또한 여성 정치인 경력이 지속되고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의원의 경력지속성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대선거구제 효과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연구 대상과 분석방법 측면에서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 후보자가 출마한 173개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몇몇 특정 자치단체만을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제라는 독립변수 이외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후보자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내·외적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노력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 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선거구 크기가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정치적으로 여성대표성 제고에 있어 선거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비례대표제나 여성의무공천제 같은 선거제도가 여성대표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이렇듯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는 선거구, 비례대표제,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은 선거 제도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정치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선거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제·윤성이. (2007). 선거구획정과 선거결과의 왜곡: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6(2): 5-27.
- 고선규. (2006).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연구』, 15(2): 121-145.
- 김석우·임성학·전용주. (2008). 한국정치사에서의 5·31 지방선거의 의미.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349-373.
- 김순은. (2010).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효과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27-55.
- 김원홍·윤덕경·김은경·김은수. (2007).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친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3(2): 119-158.
- 김원홍. (2010).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 김원홍·이현출·배선희·전선영. (2012). 여성의원 경력지속성: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1(1): 71-101.
- 박재욱. (2007). 2006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기존 논의의 평가와 쟁점. 『21세기정치학회보』, 17(3): 281-309.
- 안철현. (2011).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효과. 『21세기정치학회보』, 21(2): 43-60.
- 송광태. (2015). 지방선거 결과의 비교분석: 제4회·5회·6회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7(1): 155-184.
- 이승희. (1993).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의 성차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6(3): 195-230.
- 이준한. (2010). 한국의 중선거구제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18(1): 315-346.
- 정용하. (2010). 선거제도와 지역성. 『한국민족문화』, 37: 3-38.
- 조성대. (2010).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3(2): 115-150.
- 조정래·박지영. (2011).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3): 5-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봉기. (2005).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1): 5-25.
- 황아란. (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性差)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1): 203-222.

- 황아란. (2007). 지방의원 선거의 여성참여와 정당공천: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1): 87-108.
- 황아란. (2010).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 2010년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0(2): 31-53.
- Arceneaux, K. (2001). The "Gender Gap" in State Legislative Representation: New Data to Tackle an Old Ques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143-160.
- Brians, C. L. (2005). Women for Women? Gender and Party Bias in Voting for Female Candidat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3(3): 357-375.
- Darcy, R., S. Welch, and J. Clark. (1987). *Women, Elections, & Representation*. New York: Longman.
- Dolan, K. (2001). Electoral Context, Issues, and Voting for Women in the 1990s. *Women & Politics*, 23(1-2): 21-36.
- Duverger, M.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Translated by Barbara and Robert North. London: Methuen & Company Limited.
- Farrell, D. M. (2011).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ortin-Rittberger, J., and B. Rittberger. (2014). Do Electoral Rules Matter? Explaining National Differences in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Union Politics*, 15(4): 496-520.
- Hogan, R. E. (2001). The Influence of State and District Conditions o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US State Legislatur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29(1): 4-24.
- Holli, A., and H. Wass. (2010). Gender Based Voting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of 2007 in Finlan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5): 598-630.
- Karnig, A. K., and B. O. Walter. (1976). Election of Women to City Councils. *Social Science Quarterly*, 56(4): 605-613.
- King, J. D. (2002). Single-Member Districts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American State Legislatures: The Effects of Electoral System Change.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2(2): 161-175.

- Matland, R. E. (1993). Institutional Variables Affecting Female Representation in National Legislatures: The Case of Norway. *The Journal of Politics*, 55(3): 737-755.
- Matland, R. E., and D. D. Brown. (1992). District Magnitude's Effect on Female Representation in US State Legislatur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7(4): 469-492.
- Norrander, B., and C. Wilcox. (1998). The Geography of Gender Power: Women in State Legislatures. In S. Thomas and C. Wilcox (eds.), *Women and Elective Office: Past, Present, and Future*, 103-11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lutzer, E., and J. F. Zipp. (1996). Identity Politics, Partisanship, and Voting for Women Candid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60(1): 30-57.
- Rule, W. (1981). Why Women Don't Run: The Critical Contextual Factors in Women's Legislative Recruitment.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34(1): 60-77.
- Sanbonmatsu, K. (2002). Gender Stereotypes and Vote Choi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1): 20-34.
- Schwindt-Bayer, L. A., and W. Mishler. (2005). An Integrated Model of Women's Representation. *Journal of Politics*, 67(2): 407-428.
- Smith, A. R., B. Reingold, and M. L. Owens, (2012).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Citi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5(2): 315-329.
- Stiles, E. A., and L. Schwab. (2009). From the Suburbs to the House: The Metropolitan - Rural Population and the Success of Women Candidat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46(2): 335-346.
- Studlar, D. T., and S. Welch. (1991). Does District Magnitude Matter? Women Candidates in London Local Elections.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4(2): 457-466.
- Welch, S., and D. T. Studlar. (1990). Multi-Member Districts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Evidence from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Politics*, 52(2): 391-412.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박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 관심분야는 여성정치, 정책확산, 지방행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의회 여성위원이 여성친화적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2013)”,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의 확대를 중심으로(2011)”가 있다(ji2526@ewhain.net).

조정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2004년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The Dynamics of Cooperative and Coerc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1990s: Measuring and Explaining National Influence as Perceived by State Administrators)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간관계론, 지방행정, 방법론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4)”, “재정적 정부관계와 규제적 정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별(2011)”, “Continuity and Change in Executive Leadership: Insights from the Perspectives of State Administrators(2008)”, “Perceptions of Federal Aid Impacts on State Agencies: Patterns, Trends, and Variations Across the 20th Century(2007)” 등이 있다(clcho@ewha.ac.kr).